

12장. 예레미야의 첫째 고백과 하나님의 탄식

1. 예레미야의 첫째 고백 (2) (12:1-12:6)

1) 예레미야의 둘째 질문 (12:1-4)

- 1 여호와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렇지만 공의의 문제와⁹⁾ 관련하여
 주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의 길이 형통하고
 배신자들이 모두 평안한 것입니까?
- 2 주님께서 그들을 심으셨으므로 뿌리도 내리고
 자라나며 열매도 맺습니다.
 그들의 입은 주님과 가까우나
 그들의 속마음은 멀리 떠나 있습니다.
- 3 그러나 여호와 주님,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저를 보셨으며,
 주님을 향한 저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들을 도살할 양처럼 끌어내시고
 도살할 날을 위하여 구별해 두십시오.
- 4 언제까지나 땅이 슬퍼하고
 온 들녘의 풀이 말라야 하며,
 거기 사는 자들의 악 때문에
 육축과 새가 사라져야 합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앞날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와의 응답을 들은 후에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까?” 하고 묻는다. ‘패역한 자’ 라는 말은 언약을 어기고 배반한 남유다 왕국에 대하여 사용한 말이다 (3:7-11). 언약을 배반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한데 그들이 형통하고 안락하게 보이는 현실에서 질문한 것이다.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는 아나돗 제사장들이 외견상으로는 평안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이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입이 주님께 가깝지만 입은 멀리 떨어진 사실을 호소하고, 자기의 마음도 주님께서 살피 주시기를 구한다. 그리고 양을 도살하는 것처럼 그들을 죽일 날을 예비해 주시기를 구한다. 그는 자기 동료에 대하여 보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이것은 그 내용이 하나님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거짓 교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셨기 때문에 짐승도 멸절하게 되었다.

그러한 징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끝을 보지 않으신다’ 하고 말한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일이 된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으면서도 끝까지 거부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보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도살할 양처럼 보복해 주시기를 구하였다.

예레미야가 보복의 기도를 드린 것은 개인적인 원한과는 무관하다. 그가 보복의 기도를 드린 것은 그가 전한 예언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으나 그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없애려고 하였다. 마치 나무와 열매를 함께 없애는 것처럼 예레미야와 그가 전한 말을 한꺼번에 없애려고 하였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예레미야가 전한 그 말씀이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악인의 말이 지속되는지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복의 기도를 드린 것이다.

2) 하나님의 대답 (12:5-6)

- 5 “네가 걷는 자와 경주해도 그들이 너를 지치게 하면
 어떻게 말과 겨루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만 의지한다면

9) ‘미쉬파트’이라는 복수형을 ‘공의의 문제’로 옮겼다.

요단강의 울창한 수풀에서는¹⁰⁾ 어떻게 하겠느냐?
 6 참으로 네 형제들과 네 아버지의 집도,
 참으로 그들도 너를 배반하였다.
 참으로 그들이 네 뒤에서 크게¹¹⁾ 소리를 지른다.
 그들이 너에게 좋은 말을 하여도
 그들을 믿지 마라.

예레미야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악인의 문제를 아뢰면서 보복의 기도를 드렸으나 5-6절의 대답은 예레미야가 기대하던 것과는 달랐다. 예레미야의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셨고, 그보다는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다. 악인이 잘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 대하여 주님은 심판을 말씀하셨으나 예레미야에게는 그가 겪어야 할 더 큰 어려움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다. 지금 걸어가는 사람과 달리기를 하다가 지었다면 장차 어떻게 말들과 경주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이 정도의 어려움에서 그러한 말을 한다면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밀려올 것인데 그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하는 것이다. 예레미야가 ‘평안한 땅’에서 안전히 거하고 있는데 앞으로 요단의 물이 범람할 때와 같은 어려움이 임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는다.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조심하라고 하셨다. 형제와 아버지의 집에서 어떤 사람이 좋은 말을 하면서 그를 속이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특히 다른 사람의 칭찬에 조심하라고 하셨다.

2. 황폐해진 땅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 (12:7-13)

예레미야의 질문에 답하신 여호와께서는 ‘내 집’ ‘내 산업’ ‘내 마음의 사랑하는 것’ ‘내 포도원’ ‘내 낙토’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모두 많은 목자들, 곧 북방의 세력에 의하여서 유린되게 하셨다고 하신다(참조. 6:3).

예레미야는 밭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그 소산을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것을 ‘수치’라고 표현하면서, 그러한 수치를 당하는 것은 여호와와 분노하심 때문이라고 한다(12:13).

3. 다른 나라들에 대한 예언 (12:14-17)

여호와와 경영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그 땅에서 뽑아내어서 멸절시키실 것이고, 유다는 그들 중에서 뽑아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12:14-15).

1:10에서 ‘뽑는다’는 단어가 여기에서 이중적으로 사용된 것을 본다. 이방 나라가 여호와와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을 뽑아서 멸절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경영은 유다의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나라를 향한 것이다(12:16-17).

목상과 실천:

예레미야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

예레미야는 도살할 양이나 벌목을 당할 나무처럼 된 형편에서 하나님께 보복해 주시기를 구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예레미야는 더 이상 어떤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고백들을 하나씩 그 문맥에서 읽어 가면 예레미야가 자기의 소명을 양보하지 않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레미야는 마지막 고백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닫고 가난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20:13). 그리고 이어서 자기의 날이 수욕으로 끝나가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였다(20:18). 예레미야서에서 수욕이나 수치는 이방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밀접히 연결되는데,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도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자기의 일생을 마무리하였다. 고난당하는 백성과 함께 이방 땅에서 함께 사그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예레미야의 고백에서 읽는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십자가의 길로 가신 주님의 모습

10) ‘가온’을 ‘높음’으로 이해하여 ‘요단이 넘칠 때’로 옮기기도 한다.

11) ‘말레’ (가득함)를 ‘크게’로 옮겼다.

을 본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이다. 아무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도 앞에 있는 영광을 보시고서 그 길을 가셨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가신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그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요 2:24).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서 그 길을 가셨다. 제자들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 그분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셨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배반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사도로 세워 주셨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다.

다른 사람의 좋은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거짓 선생은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 한다(롬 16:18). 그러한 칭찬의 말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진리 가운데 굳게 서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좋다(롬 16:17).

하나님께서서는 가까운 사람의 배반으로 고통하는 예레미야에게 물었다. “네가 말과 경주할 수 있는가?” 지금 걷는 사람과 경주하면서도 어렵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말과 경주하는 것 이상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그분과 연합되면,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우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우리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롬 16:20).

12장 익힘 문제

1. 1) 예레미야는 여호와와 어떠한 심에 근거하여 악한 자의 형통과 패역한 자의 안락함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까? (1절)
2) 그 질문에 대한 여호와와 답입니다. 빈 곳을 채워 보십시오. (5절)
“네가 □□□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일한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2. 예레미야는 악하고 패역한 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2절)
3. 여호와께서는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누구의 말도 믿지 말라고 하십니까? (5, 6절)
4. 이스라엘을 지칭하시며 말씀하신 표현들을 찾아 써 보십시오 (7, 10절)
5. 이스라엘이 대적을 인하여 평안치 못하고, 밭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13절)
6. 1)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와 산업을 다치게 한 나라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14절)
2) 유다 집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14, 15절)
7. 1) 이방 나라가 여호와와 도를 배우고 여호와와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16절)
2)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17절)